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565>

JCCT 2024-5-65

감정형용사 유의어 결합 연구 -[[감정형용사 + ‘-고’] + 감정형용사] 구성-

Synonym Emotional Adjectives in Coordination: Analyzing [Emotional Adjective + ‘-ko(and)’] + Emotional Adjective] Structures in Korean

박진아*, 정용호**

Park, JINA*, Jeong, Yong-Ho**

요약 본 논의는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형식으로 감정형용사가 연결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한국어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두 개 이상의 감정형용사를 접속하여 표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구성으로 어울려 사용하는 감정형용사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감정형용사의 개별 어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풍부한 감정 표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의에서 보인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용례 및 빈도가 한국어 감정 어휘 교수-학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한국어, 감정표현, 연결구성, 말뭉치, 한국어교육

Abstract This discussion looked at how emotional adjectives are connected in the format [[emotional adjective + ‘-ko(and)’] + emotional adjectiv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quite a few cases in which two or more emotional adjectives are used to express emotions in Korean. This can help Korean learners understand and express the individual lexical meanings of emotional adjectives more clearly by identifying emotional adjectives that are used together with the corresponding configuration. It was believed that it could help Korean language learners express complex emotions or create rich emotional expressions when expressing their emotions in Korean. It is hoped that the examples and frequency of [[emotional adjective+‘-ko(and)’+emotional adjective] shown in this discussion will be of some help i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emotional vocabulary.

Key words : Korean, emotional expression, syntactic structure, corpus, Korean language education

1. 서론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특정 영역의 내용을 이해하

고 그와 관련한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소속감과 생활 만족감에 한국어 이해 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연구에서

*정회원, 울산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객원교수 (제1저자)
**정회원, 울산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객원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7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45 2024 / Revised: April 7,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saladaa@ulsan.ac.k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University of Ulsan, Korea

[2]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생활과 한국어 능력의 밀접한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감정 표현은 언어 교육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생활에서 감정은 인식과 판단의 토대로 작용하며, 거꾸로 인식과 판단으로 특정 감정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은 한국인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발달해 있고 그 표현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이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지영(2009: 205)에서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어 학습 사전과 한국어 교재에 실린 감정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고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 표현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3] 정미지(2015: 336)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다양한 감정형용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 한국어로 표현된 콘텐츠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감정표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가 각각의 감정 표현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적확한 단어를 찾아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명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영제(2014)에 따르면 한 문장에서 두 어휘가 함께 출현하는 '공기' 현상을 어휘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언어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고빈도 공기어 목록이 사전과 어휘 의미망에서 얻을 수 없는 어휘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기 양상이 감정 표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면, 감정 어휘를 교육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5]

이에 본 논의는 한국어 교육에서 감정 어휘의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선행연구에서 구축한 어휘 목록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공기 현상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감정형용사를 둘 이상 나열하여 사용한 용례'를 세종말뭉치에서 확인하여 그 목록과 빈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세밀한 감정 표현을 위해 감정형용사 둘 이상을 나열하여 사용하는 용례를 세종말뭉치 구어 및 문어 자료에서 확인하여 그 목록과 빈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어휘를 대등하게

나열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고'이므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의 용례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이 감정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감정형용사 어휘 목록 선정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논의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단계에 따라 어휘를 분류해 놓은 문금현(2012: 179)의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기준으로 감정형용사 어휘 목록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재(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경희대)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어휘를 우선 추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형용사 유의어 간 공기 표현을 확인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에 유용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어 학습자의 전 단계 수준에서 많이 노출된 어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어휘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긍정과 부정의 감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그 하위 감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한 고빈도 어휘를 국립국어연구원의 빈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용 빈도를 재검토하는 등 그 목록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다. 또 분류하고 있는 감정 의미 영역이 다른 연구에 비해 세부적이었다. 이는 유의어를 확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목록으로 선정한 개별 어휘들을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문금현(2012: 179)에서 제시한 감정 표현 어휘(서울어) 중에서 동사를 제외하면, 형용사 이외에도 체언서술어, 목적어 및 부사에 형용사가 결합한 형용사구 표현이 남는다. 여기에서 '마음이 아프다'와 같은 형용사구 표현은 삭제하지 않고 '(마음이)아프다'와 같이 처리하여 남겨두었다. '뜻밖이다'와 같은 체언서술어도 본 연구에서 형용사와 같이 취급하기로 하고 남겨두었다. 그 결과 기존의 140개 어휘 중 85개만이 남았다.

이들 어휘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뉘기 힘들다고 판단한 어휘는 중립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문금현(2012)를 비롯하여 손선주 외(2012), 홍중선·정연주(2009), 이효정(2015)와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본 논의에서 다르게 설정한 어휘에는 ‘*’ 기호로 표기해 두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감정형용사 어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1. 감정 형용사 목록(1)
 Table 1. List of Emotional Adjectives(1)

감정 구분 (어휘 수)	초급	중급	고급
긍정 (29)	고맙다, 괜찮다, (기분)좋다, 당연하다, 반갑다, 쉽다, 재미있다, 좋다, 즐겁다	관심 많다, 관심 있다, 그럽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익숙하다, 자랑스럽다, 자신 있다, 친하다, 편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감동적이다, 당당하다, 대견하다, 든든하다, 뿌듯하다, 소중하다, 후련하다, 흐뭇하다
부정 (48)	걱정스럽다*, (기분)나쁘다, 미안하다, 복잡하다, 슬프다, 싫다, 어렵다, 재미없다, 죄송하다, 힘들다	관심없다*, 괴롭다, 낯설다, 답답하다, 당황스럽다, 무섭다, 밉다, 부끄럽다, 부담스럽다, 부럽다, 불쌍하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불행하다, 심심하다, 안타깝다, 어색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상하다*, 조심스럽다*, 창피하다	시무룩하다, 서럽다, 고통스럽다, 곤란하다, 끔찍하다, 속상하다, 아깝다, 정신없다*, 귀찮다, 성가시다, 지긋지긋하다, 지루하다, 서먹서먹하다, 두렵다, 따분하다, 쓸쓸하다
중립 (8)		궁금하다*, 놀랍다*	뜻밖이다*, 신기하다*, 새삼스럽다*, 어처구니없다*, 우습다*, 상관없다*

이효정(2015)의 어휘목록에는 ‘걱정스럽다, 관심없다, 이상하다, 조심스럽다, 정신없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논의에서는 이들 어휘를 부정 감정형용사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효정(2015)에서 긍정 감정으로 분류한 ‘궁금하다, 놀랍다, 신기하다, 뜻밖이다, 새삼스럽다, 상관없다’와 부정 감정으로 분류한 ‘우습다’, ‘어처구니없다’는 본 논의에서는 중립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정들은 이 감정의 원인이나 결과가 긍정이나 부정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어처구니없다’는 감정을 유발하는 “너무 뜻밖의 일”에는 친구나 연인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난 일을 회상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감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이에 통상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만, 긍정 표현으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중립적이라 보았다.

‘우습다’는 손선주 외(2012: 116-120)에서 ‘험오’와 ‘기쁨’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으로 분류된다. 홍중선·정연주(2009: 410)에서는 ‘우습다’를 ‘평가동사’로 구분하고 있어서 본 논의의 목록과 차이가 있다. 이효정(2015)에서는 부정 감정표현으로 분류한다. 이는 ‘우습다’는 감정(웃음)을 유발하는 대상을 향한 발화자의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감정임을 고려하여 중립 감정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위 분류표를 각 표현의 상위감정으로 묶어 완성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2. 감정 형용사 목록(2)
 Table 2. List of Emotional Adjectives(2)

구분	감정 (어휘 수)	초급	중급	고급
긍정	기쁨 (6)	(기분)좋다, 반갑다, 재미있다, 즐겁다	기쁘다	감동적이다
	만족 (12)	괜찮다, 쉽다	편하다,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익숙하다, 만족스럽다, 편안하다	대견하다, 뿌듯하다, 후련하다, 흐뭇하다
	감사 (1)	고맙다		
	관심 (2)		관심 많다, 관심 있다	
	믿음 (4)	당연하다	자신 있다	당당하다, 든든하다
	예정	좋다	그럽다,	소중하다

	(4)		친하다	
부정	불쾌 (3)	(기분)나쁘다		시무룩하다
	괴로움 (19)	복잡하다, 슬프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당황스럽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불쌍하다, 불안하다, 불행하다, 안타깝다	서럽다, 고통스럽다, 곤란하다, 끔찍하다, 속상하다, 아깝다, 정신없다
	무관심(6)		관심없다, 답답하다	귀찮다, 성가시다, 지긋지긋하다, 지루하다
	미움 (2)	싫다	밉다	
	부끄러움 (8)	미안하다, 죄송하다	낮설다, 부끄럽다, 어색하다, 조심스럽다, 창피하다	서먹서먹하다
	불신 (4)	걱정스럽다	무섭다, 이상하다	두렵다
	질투 (1)		부럽다	
	실망 (1)	재미없다		
	외로움(5)		심심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따분하다, 쓸쓸하다
중립	기대 (1)		궁금하다	
	놀람 (5)		놀랍다	신기하다, 뜻밖이다, 새삼스럽다, 어처구니없다,
	기타 (2)			상관없다, 우습다

이효정(2015)는 감정균을 설정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숙진(2018)에서는 감정표현의 의미항목을 설정하여 교육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본 논의는 감정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공기 양상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때에는 각 감정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기에 이와 같이 감정유형을 나누었다.

III.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

이 장에서는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으로 감정을 표현한 용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감정형용사의 연결형의 어미로 쓰이는 ‘-고’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대등접속 어미로서 순접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고’ 접속문의 선행절 및 후행절의 용언의 관계는 대등하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관계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연결어미 ‘-고’의 용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용법은 「1」이다. 이 중에서도 감정형용사가 연결어미 ‘-고’로 연결하는 구성을 살펴본다. 그 사이에 다른 문법 요소가 개입하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경우 선행 감정형용사가 동일 상황 및 맥락에서 동일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나), 꽤, 정말’ 등과 같이 단순히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개입되어 쓰인 용례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말뭉치 구어 및 문어 자료에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를 검색 식으로 하여 용례를 추출하였고, 이때 감정형용사의 시제는 사전 표제형인 현재형으로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말뭉치 자료에서 용례 검색식으로 ‘고맙고’뿐만 아니라, ‘고마웠고, 고맙겠고’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말뭉치 구어 자료에서 긍정 및 부정의 감정 표현 용례를 검색하면, 감정형용사가 현재형이 아닌 경우에는 ‘슬펏고’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선행형용사 활용형에 ‘-었-’, ‘-겠-’ 등의 시제 선어말어미가 쓰인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은 한국인의 실제 발화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후로는 선행 감정형용사의 어간에 ‘-고’가 직접 연결된 현재 시제의 연결형만을 검색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용례의 목록과 빈도를 긍정, 부정, 중립의 감정 표현으로 절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록은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1. 긍정 의미의 감정 표현(감정형용사 29개)

1) 목록

세종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감정형용사+'-고'] + 감정형용사] 구성의 긍정 감정 표현 용례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구어 용례

고맙고(감사) 자랑스럽다/뿌듯하기도/멋진/감사한/흐뭇했습니다./영광스럽게/즐겁고

당당하고(믿음) 자신 있게/자신만만한/아름답게/자연스러운

든든하고(믿음) 존경스럽습니다.

반갑고(기쁨) 기쁘게/정답조

쉽고(만족) 좋기만/익숙하기 때문에

② 문어 용례

감동적이고(기쁨) 지적이며/눈물겨운

고맙고(감사) 보람있는/반가운/즐거웠습니다./좋은/황송한/생광스러운지/가련하지마는/소중할(뿐)/대견스러웠다

그립고(애정) 아련하다/정겨운

기분 좋고(기쁨) 통쾌하여

기쁘고(기쁨) 섭섭하게/사랑스런/반갑기가(이를 데 없는)/대견스럽지(않았다)/고마웠다./즐거운/흥겨워야/반가웠다./영광스런/영광스럽다/슬픈/듬직한/즐거웠으며/반가웠던

당당하고(믿음) 자신 있지(못하느냐는)

대견하다(만족) 든든했다/고마웠다./믿음직스러운/고맙고

든든하고(믿음) 만족하다./자랑스럽다고

만족스럽고(만족) 즐거운/평온한

반갑고(기쁨) 다행하고 대견한/기쁘다./흐뭇한/놀라워/기쁘기/기뻐서였다./기쁘지/기뻐했습니다./기쁘며/궁금해서/고맙기(짜이 없습니다.)/고마웠다./즐거운지/신기해서/신기했다./유쾌한지/고마왔습니다.

뿌듯하고(만족) 보람되었다.

소중하고(애정) 기쁜(일)/달갑다/아깝기도(했을 겁니다.)/아깝기(때문이다.)

쉽고(만족) (마음)편하게/재미있는/재미있으며/재미있게/재미있는/편해요./재미난/편안한/흥미롭게

자랑스럽고(만족) 멋뻐하게/멋뻐한/뿌듯한/흐뭇합니까?/당당한

자신있고(믿음) 당당하게

재미있고(기쁨) 즐거운/쉽게/감동적인/자신있게/쉽게/행복하다고요/흥미로운/쉽게/좋을까(싶었다.)/즐겁다고(했다)/즐거우면/즐거우며

좋고(애정) 재미있는/통쾌하여/(마음)푸근한/편안한/황홀한/편하다.

즐겁고(기쁨) (기분)좋아/반가운/행복했었다./행복했다./유쾌한/재미있는/(마음)편하게/황홀할까요?/평화로 왔던/행복하고/행복하다는/기뻐다./소중한/새로웠으니/흐뭇한지(모른다)/반가워야(할)/편하죠.

편안하고(만족) 사랑스러운/평화로워졌다./좋았다./행복되나/쉬운/즐겁다는/좋겠느냐고/즐거운/좋습니다./재미있습시다./만족스럽게/좋다./쉽게/행복해진다는/좋은 행복하고(만족) 즐거웠었다./즐거운/불행하고/즐거운 흐뭇하고(만족) 대견해하지만/뿌듯한/즐거운/즐거워서/좋아도/대견한

2) 빈도

이 절에서는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긍정의 감정 표현으로 [[감정형용사+'-고'] + 감정형용사]의 구성이 2회 이상 사용된 용례를 대상으로 그 빈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런데 실제 말뭉치 자료의 용례에서 [[감정형용사+'-고'] + 감정형용사]의 구성은 후행하는 감정형용사의 활용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제시할 때는 편의상 [[감정형용사+'-고'] + [감정형용사 + 다]]의 형태로 제시한다. '편하고 좋다'라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 보면,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편하고 좋은", "편하고 좋은데", "편하고 좋네요.", "편하고 좋습니다." 등과 같이 후행하는 감정형용사가 다양한 활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긍정의 감정 표현에서 [[감정형용사+'-고'] + 감정형용사]의 구성이 2회 이상 사용된 표현은 구어에서 2개, 문어에서 21개가 나타났다. 구어 및 문어 용례에서 25%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인 표현은 10건이며, 50%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인 표현은 3건이 있다. 50%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인 표현을 보면,

구어에 ‘편하고 좋다’ 구성이 있고, 문어에 ‘대견하고 고맙다’, ‘쉽고 재미있다’가 있다. 이와 같이 50%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용례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전체 문장을 제시하여 그 용례가 쓰인 상황 및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용례를 구어와 문어로 나누어 가나다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긍정 의미 감정 표현 구어 용례 빈도
Table 3. Frequency of Spoken Examples of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s

감정형용사+‘-고’	감정형용사+ -다	빈도	용례
편안하고	안락하다	2/4, 50%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님을 위해 안방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고쳐 주셨으면 하구요. -고급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편하고	좋다	4/7, 57.1%	-여기도 좋지만 살기 더 편하고 좋은 곳은 집이 있는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여기만 오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 -우리 집만 오면은 편하고 좋네요.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표 4. 긍정 의미 감정 표현 문어 용례 빈도
Table 4. Frequency of Written Examples of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s

감정형용사+‘-고’	감정형용사+ -다	빈도	용례
기쁘고	반갑다	3/14, 21.47%	
	즐겁다	3/14, 21.47%	
	영광스럽다	3/14, 21.47%	
대견하고	고맙다	2/4, 50.0%	-다회는 영숙이가 그래도 대견하고 고맙다. -일견 대견하고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귀찮고 걱정스러운 것도 솔직한 심정이

			있다.
반갑고	기쁘다	6/17, 35.2%	
	고맙다	3/17, 17.6%	
	신기하다	2/17, 11.7%	
쉽고	재미있다	9/14, 64.2%	
	흥미롭다	4/14, 28.5%	
좋고	편안하다	2/7, 28.5%	
편하고	자유롭다	3/15, 20%	
	좋다	4/15, 26.6%	
	즐겁다	2/15, 13.3%	
즐겁고	기분좋다	2/16, 12.5%	
	유쾌하다	3/16, 18.7%	
	재미있다	2/16, 12.5%	
	편하다	2/16, 12.5%	
	평화롭다	2/16, 12.5%	
흐뭇하고	대견하다	2/6, 33.3%	
	즐겁다	2/6, 33.3%	

구어 용례에서는 ‘편안하고 좋다’ 구성이 50% 이상 나타났지만, 문어 용례에서는 ‘좋고 편안하다’로 나타나며 구어에서의 ‘편안하고 좋다’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편하다’ 역시 구어 및 문어 용례에서 공통적으로 ‘좋다’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구어 용례에서 고빈도로 나타났다. 문어 용례에서 ‘편하다’는 ‘자유롭다, 좋다, 즐겁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2. 부정 의미의 감정 표현(감정형용사 48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감정형용사 목록에서 부정의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부감정형용사 48개 어휘를 대상으로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의 용례를 검색하였다.

1) 목록

세종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의 긍정 감정 표현의 용례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구어 용례

걱정스럽고(불신) 당혹스럽더라도/안쓰럽게
곤란하고(피로움) 곤란하고 어렵게
귀찮고(무관심) 말썽스런
낯설고(부끄럼) 물설은
답답하고(무관심) 안타까운/한심하게/생경한
두렵고(불신) 떨리는
무섭고(불신) 엄하고
뭉고(미움) 증오스럽습니다.
복잡하고(피로움) 힘들어서야/생각이 많은/힘든
부끄럽고(부끄럼) 면목 없는/착잡한/한심한
불쌍하고(피로움) 안타깝고
불안하고(피로움) 겁나는/걱정하지/초조해 보이는/기분이 안 좋아서
불행하고(피로움) 비극적인
서럽고(피로움) 애절한/외롭고/피로웠습니다.
속상하고(피로움) 서러운/허탈한
슬프고(피로움) 처량해서/애련하게
안타깝고(피로움) 송구스럽게/딱한/안쓰럽고/불쌍한
어렵고(피로움) 위험한
어색하고(부끄럼) 안 어울릴 것 같죠.

② 문어 용례

고통스럽고(피로움) 슬프고/슬픈
피롭고(피로움) 아프고/아픈/부끄럽습니다./답답한/지리한/서글픈/불쾌한/슬프다고(해도)/고달픈/후회스러웠다./어려운/한스러운/불안하다./기이하고/고되고/답답해서/처량한/고통스런/힘드는/힘들게
귀찮고(무관심) 번거롭기도/힘들다는/고달파도/번거로워합니다./어렵다고(느껴)
끔찍하고(피로움) 무서운/슬퍼서/(마음/가슴)아픈
낯설고(부끄럼) 공허하게/기이한/물설은(물 설은)/고생스러웠다./어려운/재미없던/익숙하지(못한)/거북하게/

생소하기만/두려운/불길한(기분)/쓸쓸했습니다./어색하게/힘겹지만

답답하고(무관심) 안타까운/섭섭해서/힘든/괴로워/쓰리고 아팠습니다./쓰린(마음)/슬펏던/슬픈/지겨워/분하고/짜증스러울(때)/따분한/괴롭게/(가슴)아픈/지루한지/고생스러운/우울한/초조한/불안하다/한심스럽기만(하다)/분하면/안타까운/암담한/불안하다/불안하기까지(합니다)/(가슴이)아프다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귀찮은
두렵고(불신) 갑갑한/불안해서/무서운/괴로운/조심스럽기만/떨리는/복잡한/떨렸다./피로웠으며/무서운/고통스럽단(말인가?)/아까워/무서웠다./불안한/불안하다/귀찮게만/괴로운/당황한/떨리고

따분하고 지루한/외로울(때)
무섭고(불신) 싫은/끔찍하다는/힘들었다/지겨운/지겹다./두려운/두려웠던/나쁜/어렵게만(느껴졌던)/신비스럽게/미웠는지/두렵다기보다는/부끄럽지만/떨려서/답답했다./두려웠다./싫었고/뭉기만/불안한

미안하고 서운해서/불안하고/민망한/두렵던지/부끄러웠다.
복잡하고(피로움) 힘드는/어려운/어렵기(때문이다)/어렵다./힘들게/어렵게들/혼란스럽기까지(하다.)

부끄럽고(피로움) 슬프게/슬픈/창피한/창피하고/창피해서/창피했다./창피스러워/걱정스러웠다./죄송하단(말을)/미안하고/미안스러운/답답한/답답하기까지(합니다)/쑥스럽지만/쑥스러웠다./끔찍스럽고/괴롭고/안타까웠다./두려워/두려워서/두려웠다./민망했던/죄스럽게
부담스럽고(피로움) 미안했다.

불쌍하고(피로움) (가슴)아플(뿐이다)/불행한/딱해서/딱한/서러운/가없고/가없은

불안하고(피로움) 초조할(뿐)/초조하고/초조하게/초조했지만/초조하다./초조해진다./불쾌하다./조마조마하다./진진궁궁합니다./불쾌하긴(마찬가지다)/.(가슴이)답답해서/섬뜩하고/걱정스럽게/걱정스러운/걱정스럽다./짜증나는/미안하다./실망스러워했던/언짱기(짝이 없다.)

불편하고(피로움) 불안하게/힘들었지만/애석하기(짝이 없는)

불행하고(피로움) 민망한/불우한/측은히/불쾌한/가없은/고통스러운

서럽고(피로움) 애절한/처량하게만/고달픈/억울하고/억울한/쓸쓸할/어이없는

성가시고(무관심) 답답한/귀찮기만(하군요)
 속상하고(피로움) 억울해서
 슬프고(피로움) 아픈/아팠다./(가슴이)아팠습니다./외
 롭고/외로울(뿐)/원망하는/안타까운/안타까웠다./불안스
 럽기만/괴롭고/가련한/외롭게만(보이는)/억울한/처참한/
 부끄러운/답답하고/고통스런/쓸쓸한/애석해(하는)/딱한
 심심하고(외로움) 무료한/외로워서
 쓸쓸하고(외로움) 외로운/두렵다는(거였오.)/안쓰럽
 고/(가슴)아픈/절망한(듯)/불안해지곤/허무하고/허전해
 서/고적해서/외로운/무섭다는/순편치가(않았다.)/치량한
 /허전하게
 아깝고(피로움) 안타깝다./섭섭했다./불쌍하겼고나!
 안타깝고(피로움) 부끄러운/슬플(때)/(가슴)아픈/(가
 슴)아팠다./두려운/우울한/민망할(뿐)/초조하다(못해)/서
 운하기는/밧고/귀찮아서/피로운/무서웠다./슬퍼서/분해
 서/한심하게/창피스러운/고통스러운/고통스럽고/걱정스
 러운
 어렵고(피로움) 두렵기까지(한)/두렵다는/힘든/외로
 운/힘들지만/힘든/힘들었으며/힘들었던/힘들었지요?/괴
 롭던/고달픈/복잡하고/복잡한/서먹하지/난감한
 어색하고(부끄럼) 거북한/거북살스런/싫기만(했다.)/
 이상하다는/창피스러웠지만/쑥스러웠다./답답했다./미심
 쩌지(않은가?)/서먹했다./생소합니다만/우스꽝스러운
 외롭고(외로움) 고뇌스러웠다./쓸쓸해/쓸쓸하고/쓸쓸
 하게/쓸쓸한/쓸쓸했네/아팠던/힘겨운/고달픈/우울할
 (때)/두려운/무서운/불안해서/슬픈/슬프고/슬퍼질(뿐)/슬
 퍼서/서러운/서럽게/지루한/불안해/불안한/슬프다./당황
 스럽다/허전하다/힘든/힘들(때마다)/고통스런
 우울하고(외로움) 고달픈/서글픈/쓸쓸한/애달픈/힘든
 /지겹게/불안하게
 이상하고(불신) 찜찜했다./궁금하기만(합니다.)/괴상
 하고/불길한/우스워서/나쁘고
 지루하고(외로움) 답답했다./답답하고/고달팠다./고통
 스러웠던/재미없다./힘든
 창피하고(부끄럼) 부끄러운/원통해서/어처구니없었
 다.
 힘들고(피로움) 어려운/고된/피로운/피로웠지만

부정 의미의 감정형용사 ‘미안하다’의 연결형 ‘미안
 하고’에 후행하는 감정형용사를 보면, ‘서운하다’, ‘불안
 하다’, ‘민망하다’와 같은 부정의 감정형용사와 주로 연

결되어 쓰인다. 그러나 앞에서 긍정 의미의 감정형용사
 연결형 ‘그립고’가 부정의 감정형용사와 공기하는 특징
 을 보였던 것처럼, 부정 의미의 ‘미안하다’가 긍정의 감
 정형용사 ‘고맙다’, ‘감사하다’와 연결어미 ‘-고’로 연결
 되어 쓰인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용
 례 8개 중에서 ‘미안하고 고맙다’가 2회, ‘미안하고 감
 사하다’가 1회 나타났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헛걸음만 친 병모의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
 다는 말을 드립니다.
- 목에 잠긴 가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 “힘 내세요”라며 수줍게 웃는데 그렇게 미안하고
 또 고마울 수가 없었다.

위에 제시한 용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상황이 ‘미
 안한’ 대상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화자(필자)가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부
 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은 ‘미안하다’에 반영이 되고,
 긍정적인 감정은 ‘고맙다’, 또는 ‘감사하다’에 반영되어
 있다.

‘이상하다’의 연결형 ‘이상하고’의 후행 감정형용사를
 보면, ‘찜찜했다’ ‘괴상하고’ ‘불길한’ ‘나쁘고’와 함께
 ‘우스워서’가 나타난다. 이는 ‘우습다’를 긍정 감정형용
 사로 볼 때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나란히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즉, ‘우습다’가 언제나 기쁨이라는 기본감정
 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중립적인 감정으
 로 구분한 ‘이상하다’가 그 기본 감정인 ‘의심’을 나타
 낼 때에도 그 속에는 긍정 부정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하다’가 자아내는 의심이
 ‘신기하다’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우습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2) 빈도

이 절에서는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부정의 감정 표현
 으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의 구성이 2회
 이상 사용된 용례를 대상으로 그 빈도를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이때 용례 목록은 앞의 긍정의 감정표현 때와
 같이 편의상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다]]

의 형태로 제시한다.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부정의 감정 표현의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의 구성이 2회 이상 사용된 표현은 구어에서 3개, 문어에서 50개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25%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인 표현은 14건이며, 50%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인 표현은 6건이 있다. 50%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인 표현을 보면, 구어에 ‘답답하고 안타깝다, 복잡하고 힘들다’ 구성이 있고, 문어에 ‘고통스럽고 슬프다’, ‘끔찍하고 (가슴이/마음이)아프다’, ‘복잡하고 어렵다’, ‘어렵고 힘들다’가 있다.

이와 같이 50%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이는 용례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전체 문장을 제시하여 그 용례가 쓰인 상황 및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용례를 구어와 문어로 나누어 가나다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부정 의미 감정 표현 구어 용례 빈도
 Table 5. Frequency of Spoken Examples of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감정형용사+‘-고’	감정형용사+ - 다	빈도	용례
답답하고	안타깝다	2/4, 50%	-나가 줘... 자기 짐 챙기는 하림... 답답하고 안타까운 듯 바라보는 하영에서... -오피스텔, 밤 답답하고 안타까운 듯 하림을 보는 태우
복잡하고	힘들다	3/3, 100%	-서동희 너나 인우 오빠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서야 어디 살겠니? -너나 하영이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서야 어디 살겠나? -인우... 김학천 너나 하영이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이야... 김인우?
힘들고	어렵다	2/6, 33.3%	

구어 용례에서 ‘힘들다’와 ‘어렵다’, ‘복잡하다’와 ‘힘들다’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어 용례에

서는 ‘힘들고 복잡하다’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렵고 힘들다’가 나타나지 않았다. ‘답답하다’가 ‘안타깝다’와 연결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긍정 의미 감정 표현 문어 용례 빈도
 Table 6. Frequency of Written Examples of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s

감정형용사+‘-고’	감정형용사+ - 다	빈도	용례
고통스럽고	슬프다	4/4, 100%	-환이는 윤씨의 고통스럽고 슬픈 아들이 아닌가. -극락 쪽으로 가는 중생이 있어 언제나 고통스럽고 슬픈 가운데서도 문득 소슬한 기쁨을 맛보고는 하였는데... -다시 보아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 더욱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기억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괴롭고	힘들다	2/23, 8.6%	
	아프다	2/23, 8.6%	
	슬프다	2/23, 8.6%	
	어렵다	2/23, 8.6%	
귀찮고	번거롭다	3/14, 21.4%	
	성가시다	2/14, 14.2%	
	짜증나다	2/14, 14.2%	
끔찍하고	(가슴이/마음이) 아프다	2/4, 50.0%	-훈아 누나가 목을 매고 죽은 그 끔찍하고 마음 아픈 일은 중손과 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밀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낮설고	물설다	4/15, 26.6%	
	거북하다	2/15, 13.3%	
	생소하다	2/15, 13.3%	
답답하고	슬프다	2/26, 7.6%	
	쓰리다	2/26, 7.6%	
	아프다	2/26, 7.6%	
	지루하다	2/26, 7.6%	
	안타깝다	2/26, 7.6%	
	불안하다	2/26, 7.6%	
	분하다	2/26, 7.6%	
두렵고	불안하다	4/20, 20.0%	
	무섭다	3/20, 15.0%	
	괴롭다	3/20, 15.0%	
	떨리다	3/20, 15.0%	
무섭고	두렵다	5/20, 25%	
	싫다	2/20, 10%	
	지겹다	2/20, 10%	
복잡하고	어렵다	6/10, 60%	
불쌍하고	딱하다	2/7, 28.5%	
	가엾다	2/7, 28.5%	
불안하고	초조하다	7/17, 41.1%	
	걱정스럽다	3/17, 17.6%	
서럽고	억울하다	2/7, 28.5%	
슬프고	안타깝다	6/25, 24.0%	
	아프다	3/25, 12.0%	

	외롭다	3/25, 12.0%	
어렵고	힘들다	15/30, 50%	
	복잡하다	5/30, 16.6%	
	두렵다	2/30, 6.6%	
외롭고	쓸쓸하다	10/37, 27%	
	슬프다	6/37, 16.2%	
	서럽다	4/37, 10.8%	
	고통스럽다	3/37, 8.1%	
	불안하다	2/37, 5.4%	
	힘들다	2/37, 5.5%	
	고단하다	2/37, 5.4%	
	지루하고	답답하다	2/6, 33.3%
힘들고	괴롭다	3/25, 12%	
	어렵다	6/25, 24%	
	지겹다	2/25, 8%	
	지루하다	2/25, 8%	

문어 용례에서는 ‘복잡하고 어렵다(60%)’와 ‘어렵고 복잡하다(16.6%)’가 모두 나타났다. 복잡하다가 어려움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힘들고 어렵다(24%)’와 ‘어렵고 힘들다(50%)’가 모두 나타났다. 이는 ‘힘들다’와 ‘어렵다’가 각 어휘의 원인과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어 용례에서 ‘답답하다’는 ‘슬프다, 쓰리다, 아프다, 지루하다, 안타깝다, 불안하다, 분하다’와 모두 접속하였는데 그 빈도(각 7.6%)는 높지 않았다.

3. 중립의 감정 표현(감정형용사 8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감정형용사 목록에서 중립의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감정형용사 7개 어휘를 대

상으로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의 용례를 검색하였다.

1) 목록

세종말뭉치 자료에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의 긍정 감정 표현 용례를 보면 구어 용례는 없으며, 문어 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구어 용례

중립의 감정 표현에서 구어 용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② 문어 용례

궁금하고(기대) 걱정이다/꺼림칙하긴 했다
 놀랍고(놀람) 감탄스러운/기쁘다/기쁜/밋고 더럽고 가엽고*/대견스러웠다/두려운/두렵기만/무서운/반가워서/분하여/분한/슬픈/신기하기 그지없었다/신기하기만/신기하기까지/신기한/신기해서/어처구니없는/의아스러운/의아하여/이상하고/이상할 뿐/자랑스러운/충격적인 것은/황송할 뿐/황홀하여/흐뭇하겠는가
 뜻밖이고(놀람) 돌연한 것이다
 새삼스럽고(놀람) (한없이)평화스러웠다
 신기하고(놀람) 궁금한 게/재미있게만(보였다)/재미있었기(때문이었다)/재미있기까지(하였다)/두렵기만(하였다)
 어처구니없고(놀람) 신기할(지경)/허망한
 우습고 재미있는/재미있게/재미있었다./열없기도

‘신기하고’는 ‘궁금’, ‘재미’, ‘두려움’과 어울려 사용되었다. ‘신기하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고, ‘낯설’의 의미를 동반한다. 따라서 ‘궁금’과 ‘재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두루 사용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신기하고 궁금하다가 나타난 반

면, ‘궁금하고’는 ‘신기하다’를 동반하지 않았고, ‘놀랍고’는 ‘신기하-’와 연결되었다. 이는 ‘궁금하다’가 ‘신기하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지만, ‘신기하다’가 ‘궁금하다’를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빈도

중립의 감정 표현에서 구어 용례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빈도를 제시할 수 없다.

표 7. 중립 감정 문어 용례 빈도
 Table 7. Frequency of Written Examples of Neutral Emotions

감정형용사+’-고’	감정형용사+’-다	빈도	용례
놀랍고	기쁘다	2/30, 6.6%	
	두렵다	2/30, 6.6%	
	무섭다	2/30, 6.6%	
	분하다	2/30, 6.6%	
	신기하다	5/30, 16.6%	
신기하고	재미있다	3/5, 60%	-산문 밖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 빨간 털모자가 신기하고 재미있게만 보였다. -편하기도 하려니와, 흡사 닭을 탄 듯이 신기하고 재미있기까지 하였다.
우습고	재미있다	3/4, 75.0%	-다만 우습고 재미있는 얘기로만 읽힐 것이다. -인기가 있는 <춘향전>에서는 주종이 서로 우습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읽을 만하여 독자를 즐겁게 해 준다. -젓었던 내 눈에는 한국 영화가 참으로 우습고 재미있었다.

* 이 용례는 ‘-고’로써 여러 개의 감정형용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 술 마시는 데에 한층 더 놀랍고 밋고 더럽고 가엽고 한 복잡한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다.”

빈도에서 ‘신기하고’는 ‘재미있다’와 60%의 빈도를 보였다. 위의 용례에서 살핀 바와 함께 ‘신기하다’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흥미’와 ‘호기심’

과 같은 감정에 더 자주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습고’의 용례를 확인하면 ‘재미있다’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75%에 달한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과 공기한 경우는 1회에 그치고 있어서 문장 자체로는 긍정적인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우습고 재미있는 얘기로만 읽힐 것”이라는 문장은 여러 정황을 배제한 결과로 우습고 재미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주종이 서로 우습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 역시 그것을 우습고 재미있는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우습다’는 “재미가 있어 웃을 만하다”, “못마땅하여 보기 거북하다”, “대단치 아니하거나 하잘것없다”라는 세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첫 번째 의미에 집중했을 때, ‘우습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듯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습다’의 경우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가 판단된다.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 적극적인 의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체 스스로 우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즉 ‘우습다’는 긍정성과 부정성 모두를 획득할 수 있고, 타인이나 대상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도가 있는가, 감정 주체의 기준에 타인의 행위가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등이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V. 결 론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며 한 단어로만 분명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감정 표현은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 맞춰서 학습 어휘를 정리하는 선행 연구와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감정 어휘를 학습한 이후 단계별 읽기, 듣기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문형과 어휘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의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제시한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세종말뭉치 자료를 통해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한국인이 감정을 표현할 때, 연결어미 ‘-고’로 감정형용사를 동일한 감정 의미 부류에 속하는 감정형용사를 나열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고빈도로 사용되는 용례를 대상으로 그 표현이 쓰인 대화 상황 및 문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일 의미 부류의 감정형용사가 함께 쓰이면서, 공통 의미 영역은 강조하고 이외의 개별 의미 영역은 서로 보완하면서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선후 감정형용사들은 동일 의미 부류에 속하며 동일한 상황 및 문맥에서 대등 접속의 연결어미 ‘-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유의어군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첫째,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인의 감정 표현의 한 유형으로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구성에서 함께 쓰이는 감정형용사 유의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어휘 학습 및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고빈도로 나타나는 용례는 한국인들에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유용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어휘 교육과 함께 표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의 전형적인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사용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기초로 삼은 감정형용사의 목록이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감정형용사 전체를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의 용례 전체를 대상으로 대화 상황 및 문맥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형용사+’-고’]+감정형용사] 구성이 한국어 감정 표현에서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어 감정 교육에 이를 활용하면 학습자에게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하도록 교수-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유의어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어휘를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작업과 함께 유의어 관계의 감정 어휘와 반의 관계의 감정 어휘 등을 공기하면서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강의에 적용해 본다면, 학습자가 교재 바깥에서 마주하는 한국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문학 및 문화 영역의 한국어 텍스트를 학습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짐작해 본다. 다만, 본 논의에서는 감정 표현 양상을 목격하고, 활용 가능성을 살피는 데에 머물렀다. 본 논의의 한계와 추측한 가능성에 관해서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References

- [1] Lee, Jai Young, Kong, Ha-Sung, "The Effect on Safety Awareness of Korean Language Level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7, No. 3, pp.529-535, August 31, 2021.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529>
- [2] Im, Do-Hyun, Basilisco, Richard, Shin, Kwan-Soo, Bae, Seong-Chan, "Determinants of Working Internat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Sense of Belon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10 No.4, pp.322-336, 2022.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4.322>
- [3] Lee, Jee-Young, "A Study of Emotion Express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Semantics, vol.29, pp.201-227, August 30, 2009.
- [4] Jung, Mi-ji, "Study on the Aspect of Distinguishing Emotive Adjectives in Synonymous Relation: Focused on comparing performance of advanced Korean learners with Korean native speakers",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Vol.42, pp.333-358, June 7, 2015.
- [5] Lee, Youngje, "An Approach using High Frequency Co-occurring Nouns for Vocabulary Learn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Vol.23, pp.189-214, November 17, 2014. DOI: 10.29211/soli.2014.23.007
- [6] Moon, Keumhyun, "A Study on the Speaking Education of Korean Emotional Expression Vocabulary", Poetics & Linguistics, No.22, pp.175-200, February 2012. UCI: G704-002008.2012.22.013
- [7] Sohn, Sunju · Park, Mi-Sook · Park, Ji-Eun · Sohn, Jin-Hun, " Korean Emotion Vocabulary: Extraction and Categorization of Feeling Word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Vol.15, No. 1, pp.105-120, March 2012. UCI: G704-001372.2012.15.1.007
- [8] Hong, Jong-sun. Jeong, Yeon-ju, "Establishing the category of emotion verb and classifying emotion verbs", Korean Linguistics, vol.45, November 2009, pp.387-420. UCI : G704-000626.2009.45..005
- [9] Lee, Hyojeong, "Korean Emotional Vocabulary Educatio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Vol.42, pp.271-302, 2015. UCI : G704-SER000010512.2015.42..001